

학생약물남용과 문제점

(藥物中毒은 나라를 망친다.)

洪 文 和

韓國學校保健協會 理事
서울대학교 名譽教授 藥博

1. 약물중독(藥物中毒)의 심각성

근래 언론보도에 의하면 히로뽕 중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히로뽕 제조기 주범이 사형을 구형받았다고 한다. 또 연예인들 사이에 대마초(마리화나)를 흡연하는 자들이 많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위 「본드」라고 하여 접착제에 사용되고 있는 휘발성 유기용제(有機溶劑)를 흡입하는 장난이 유행되어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니 놀라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유흥장소의 쓰레기 통속에 마약을 주사하는데 사용한 1회용 주사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TV 화면을 볼때에 사태가 심각치 않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약물중독자가 늘어간다는 것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고도산업사회(高度産業社會)의 공통된 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보면 원래는 대도시의 사회경제적으로 하층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많았으나 오늘날은 급속하게 증가되어 모든 사회경제층의 젊은 자라들에게 퍼져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약물중독의 사회적 결말은 범죄, 정상적인 사회활동의 포기, 개인 및 가정의 파괴, 육체적 및 정신적인 멸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되어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퇴폐가 판을 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약물중독도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권순경(權順慶) 교수가 발표한 「중·고등학생의 약물남용실태 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약물의 남용 및 중독이 장차 나라의 주인이 될 중·고등학생에게 까지 번져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가지 결론을 인용하면

① 진통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히로뽕, 대마초(마리화나), 본드, 마약진통제, 환각제 등 9종의 약물중에서 어느 것이고 남용목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잇는 학생수가 전체학생의 20.1%이었고,

② 남용약물 중에서 각성제의 남용율이 14.1%로 가장 높았고, 본드 4.3%, 진통제 2.3%, 수면제 1.5%, 신경안정제 1.4%, 대마초 1.2%, 히로뽕 0.9%, 마약진통제 0.7%, 환각제 0.6%의 순이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히로뽕은 아직도 극소수 학생사이에서만 남용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③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2배 정도 약물경험이 많았으며 여학생의 약물경험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것은 여학생의 약물사용의 내용이 제도권 내의 약품사용이었음에 반하여 남학생은 히로뽕, 본드, 대마초, 마약진통제, 환각제 등 불법적인 물질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④ 이와같은 약물남용이 음주, 흡연, 가정 환경, 학업성적의 불량 등과 상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약물남용 및 중독이 청소년층에서 뿌리가 뽑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사회전체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청소년의 교육담당자 및 가정의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각성하여야 하겠다.”

2. 약물의존성(藥物依存)

무슨 약이건 오래 계속해서 사용하면 내성(耐性)이 생겨서 점차 사용량이 증가되는 동시에 정신적인 의존성(依存性)이 생겨서 사용을 중단하면 섭섭한 생각이 들게 된다. 이와같은 정도가 좀더 진행되면 드디어는 육체적 의존성이 생겨서 약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는 육체적인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된다. 그런 단계에서 약의 사용을 급격하게 중단하면 생리적으로 파괴적인 금단증상(禁斷症狀)이 일어나게 된다. 그와 같은 금단증상이 일어나는 약은 중추신경작용을 지니고 있는 약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편·모르핀·코카인 등과 그 유도체들인데 미량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고 있으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耽溺性)이 생기게 된다.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가 생겨서 그 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드디어는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어 사회에서 탈락하게 되는 무서운 물질이다. 그와 같은 무서운 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麻藥)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여 엄격한 법률에 의해서 다루게 되어있다.

아편계통은 아니면서 화학적으로 합성된 진통, 진정제로서 의존성이 강하게 생기는 약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합성마약이라고 하여 역시 엄중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또 마약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용에 의하여 습관성이 생겨서 정신적 및 육체적 금단증상이 생길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에 대해서도 특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마취 작용 및 환각작용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마초(大麻草)도 대

마관리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를 일체 의약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규제를 받고 있는 약으로는 ① LSD 및 이와 유사한 환각작용이 있는 물질, ② 암페타민(amphetamine) 및 이와 유사한 각성작용이 있는 물질 ③ 바르비탈(barbital), 메프로바메이트(meprobamate) 및 이와 유사한 습관성 또는 중독성이 있는 물질 ④ 프로폭시펜 및 이와 유사한 습관성 또는 중독성이 있는 물질 ⑤ 이 밖에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남용하면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등이 있다. 요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각성제인 히로뽕(methamphetamine)이 향정신성의약품 사범(事犯)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등을 계속 사용하면 만성 중독이 되어, 사용을 중지하면 심각한 금단증상이 생기게 되므로 도저히 사용을 끊을 수 없게 되어 결국은 몸을 망치게 되는데 이것을 마약중독이라고 한다.

금단 증상으로는 자율신경 증상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하품·재채기·유연(流涎)·열감(熱感)·오한·심계항진(心悸亢進)·발한(發汗)·정신불쾌감이 등이 있다. 근래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수면제나 트랜퀼라이저(tranquilizer) 등이 계속 사용에 의해서도 만성 중독이 생김으로 이런 것 등을 모두 합쳐서 약물의존(藥物依存·drug dependency)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3. 습관성 약물의 작용

1) 암페타민, 히로뽕등 각성제

- 약리작용 : 신체적, 정신적 활동의 속도를 증가시켜, 강한 활력과 극단적인 흥분이 생기게 한다.
- 신체적 징후 : 체중감소, 동공(瞳孔) 산대(散大), 불면증, 설사, 떨림
- 장기적(長期的)작용 : 망상, 폭력행동, 지나치

게 복용하면 사망에 이른다.

2) 바르비탈

- 약리작용 : 강력한 수면작용과 탈력감
- 신체적징후 : 언어의 불분명 및 혼란, 신체운동의 협동과 밸런스가 없어짐.
- 장기적 작용 : 정상적인 수면 패턴이 깨어지고, 물체가 2중으로 보이며, 과도한 복용으로 사망하며, 특히 술과 같이 복용하였을때 생기기 쉽다.

3) 대마초

- 약리작용 : 몸과 마음이 이완(弛緩)되며 지각기능이 높아지며 기분이 동요되기 쉽다.
- 신체적 징후 : 눈의 충혈, 동공산대, 몸의 협동운동상실, 졸음, 때로는 메시꺼움이 생긴다.
- 장기적 작용 : 의존성이 지나치면 심리적인 악영향이 생긴다.

4) 코카인

- 약리작용 : 신경계를 자극하여 감각기능을 높이며 때로는 환각작용이 생기게 한다.
- 신체적징후 : 동공산대, 떨림, 환각, 불면증
- 장기적 작용 : 전신에 가려움증이 생긴다.

5) 아편계통(모르핀, 헤로인 등 포함)

- 약리작용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없애준다. 일시적인 다행감(多幸福感)이 생긴.
- 신체적 징후 : 체중감소, 졸음, 기분의 동요, 발한, 말더듬, 눈이 아픔, 얼굴이 창백하게 된다.
- 장기적 작용 : 식욕감퇴, 영양실조, 감염증에 걸리기 쉬움, 여성은 월경이 없어지고 지나친 사용으로 사망에 이름.

6) 환각제(LSD, 메스카린 등)

- 약리작용 : 환각이 생긴다.
- 신체적징후 : 동공산대, 발한, 떨림, 행동이상, 때로는 오한과 발열

- 장기적 작용 : 무책임한 행동, 한번에 사용만으로도 오랜동안 심리적 혼란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음.

7) 휘발성 물질(유기용제) 본드, 신너 등

- 약리작용 : 환각, 현기증, 일시적인 다행감, 때로는 의식상실
- 신체적징후 : 정신착란증, 동공산대, 얼굴이 붉어짐
- 장기적 작용 : 뇌, 간장, 신장 등의 장애 및 호흡에 의한 질식의 가능성도 있음.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이 비닐 봉지에 접착제 본드를 짜서 넣고 얼굴을 틀어 박고 증기를 흡입하고 정신착란에 빠져서 폭행, 살인 등을 저지르고 또 심한 경우에는 질식되어 죽은 예도 있다.

히로뽕은 일시적인 각성작용이 있어 졸음을 쫓고 단순한 운동작업이 증진되는 반면 복잡한 정신작용에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여 실수를 하게 된다. 강한 습관성이 있으며 증증이 되면 신체허약과 정신분열증이 생긴다.

약물중독이 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파탄이 생겨서 정상적인 활동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기분이나 행동의 안정성과 침착성이 없어지고 불안초조한 상태와 졸음에 지쳐 떨어진 상태가 번갈아 나타난다. 식욕이 없어지며 까닭없이 피곤하며 짜증이 생긴다. 이렇다할 이유도 없이 집에서 뛰쳐나와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돈은 있는대로 써버려서 언제나 빈털털이인 상태등 일때는 약물중독을 의심하여 볼 필요가 있다.

약물중독의 동기는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서 나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의 눈을 피하여 술과 담배를 입에 대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문제이다. 수험준비를 한다고 무리한 과로를 거듭하다가 학업의 진도에 자신이 없어지면 좌절감과 초조감 때문에 현실도피를 하느라고 술, 담배, 약물 등의 순서로 빠져 들어가기 쉽다. 그럼으로 가족들이나 선생은 언제나 따뜻한 관심으로 아이들은 지켜보면

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약물중독이 된 본인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할려고 하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이미 중독이 된 사람은 전문적인 의사에게 치료를 맡겨야 한다. 단 순한 훈계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고 도리어 역 효과가 나타나는 수도 있으므로 약을 끊게 하면서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약의 양을 점차 줄여가든지 또는 대번에 딱 끊게 하든지, 딱 대용약을 사용하든지 전문적인 치료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금단증상이 없어지면 치료의 제 2 단계로서 정신요법과 작업요법을 실시하여 중독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담배나 술과 마찬가지로 일단 힘들여 끊었다가도 다시 옛 친구들 께임으로 다시 입에 대기 시작하면 도루아미 타블이 된다. 일단 치료가 되면 친구를 바꾸어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도록 유도하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4.

우리나라는 아편 알칼로이드 및 코카인 등 마약은 원료의 생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약법 시행이 엄격하여 마약 중독자가 생길 염려가 거의 없는 것을 자랑하여 왔다. 그러나 근래 불법적으로 합성이 가능한 히로뽕이라든가 또는 섬유 원료식물로서 재배되는 삼(대마초)에서 채취되는 마리화나의 중독자는 쉽게 생길 여건을 지니고 있다. 또 이밖에도 합법적으로 제조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아직도 의약분업이 되어 있지 않아, 약의 유통이 문란하게 될 소지를 지니고 있고, 흡입에 의하여 약물중독이 되는 접착제 본드의 악용도 불가피하게 유행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으로 여기서는 대마초, 히로뽕, 흡입성 약물중독에 대하여 좀 더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본래 약에 대한 습관이 그릇되어 있어 의존성을 초래하는 약이 아니더라도 남용(濫用) 또는 오용(誤用)하는 사례가 흔하다. 그럼으로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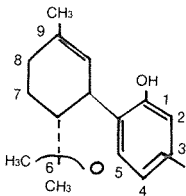
응증(適應症)도 아닌데도 해열진통제(解熱鎮痛劑)를 남용하여 의존성이 생겨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그와 같은 약이 대중광고 매체를 통하여 선전하게 되어 있는 것도 남용과 오용이 많아질 수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근래 사회의 도덕, 윤리적 기강이 문란하게 되어 청소년의 범죄가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음주와 흡연 또는 인신매매, 성(性)의 문란 등 퇴폐적인 풍조가 늘어나고 있어 약물중독이 많아질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다같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 대마초(大麻草·마리화나)

대마초는 우리나라에서도 삼베의 원료인 섬유식물로서 재배되는 삼(식물명으로 Cannabis Sativa)을 말한다. 대마초는 자웅이주(雌雄異株)의 식물이며, 약물중독의 원인이 되는 활성화합물은 주로 암꽃송이의 수지삼출액(樹脂滲出液)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그런것에 구애되지 않고 대마초의 모든 부분을 건조시켜서 사용하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마리화나(marihuana)라고 하면 대마초의 모든 부분 또는 추출물을 칭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잎사귀를 말린 것을 흔히 사용한다. 차처럼 달여 마시거나 담배로 말아 피우면 환각작용과 마취작용을 나타낸다. 이와같은 약리작용이 있다는 것은 이미 2천년전부터 동양에서는 알려지고 있었다. 중국의 고대(古代) 명의로 전해지고 있는 화타(華佗)가 개발한 전신마취제인 마비산(麻沸散)이 바로 대마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보더라도 대마잎을 먹으면 「見鬼狂走」한다고 되어 있다. 헛도개비를 보고 미쳐 날뛰는 뜻이 되겠다. 그런 미치광이가 풀을 왜 먹느냐고 옛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새삼 놀라게 된다. 그의 작품 「惡의 꽃」으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의 데가당시인 <보들레르>(Baudelaire, Pierre Charles, 1821~1867)도 대마초 중독자이었는데, 대마초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자 대마초의 무서운 해독을 기록하여 「...생각하기 위해서 독약의 힘을 빌리는

자는 언젠가는 독약없이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상상력이 마비되고 대마초나 아편의 도움없이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된 인간의 운명은 상상만 하여도 소름끼치는 일이 아닌가라고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외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의욕할수 없고 활동할 수 없이 오줌, 똥을 마구 싸면서 병원인지 유치장인지 조차 구별 못하는 식물인간이 바로 대마초 중독자들의 말로인 것이다.

대마초의 정신작용활성을 지닌 주요한 성분은 Δ^9 THC (Δ^9 -trans-tetrahydrocannabinol)등이며 화학적 구조식은 아래와 같다.



마리화나는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빠져들어가는 약물이며 1976년의 조사에 의하면 고교생의 6.2%가 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술과 마리화나는 서로 따라 다니며 술 마시는 자들이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또 반대를 마리화나를 흡연하게 되면 술도 마시게 된다고 한다. 또 마리화나의 상습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보다 더 강력한 약물중독의 stepping stone이 된다고 한다.

마리화나는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동작의 장애도 초래하게 된다.

만성중독의 증상은 억제약(抑制藥), 수면제(睡眠劑)의 장기 의존된 상태와 유사하여, 무감정(無感情), 둔마(鈍麻), 판단력·집중력·기억력등이 손실되고 졸음에 빠진 멍청한 상태가 된다. AIDS 처럼 면역성 저하도 생겨서 바이러스나 진균(眞菌·곰팡이)에 대한 감염 또는 암이 발생되기 쉬워진다.

2) 각성제(암페타민, 히로뽕 등)

히로뽕은 제 2차 대전 중에 일본이 야간 전투에서

졸음을 쫓기 위하여 개발된 것인데 당시는 심각한 의존성 및 내성이 생기는 것을 미처 모르고 심지어는 수험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까지 가정약으로서 복용시키기 까지 하였으니 무서운 노릇이다. 일본이 전쟁에 패망하여 절망적인 전후 퇴폐된 궁핍속에서 고통과 시름을 잇기 위하여 히로뽕을 장기 사용하는 자가 많이 생겨나서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히로뽕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한 일본은 현재 히로뽕을 제조 또는 유포시키는 자를 극형으로 처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각성제의 중독은 육체적인 뇌손상(腦損傷)뿐만 아니라 망상형 정신분열증마저 이르게 된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약물중독이 각성제의 정맥주사에 의해서 생기며 결국은 몸과 마음의 파멸을 초래한다. 암페타민을 Methedrine(생략하여 meth·또는 speed 라고도 함)이라는 상품명으로도 부르는데, "meth is death" 또는 "speed kills" 등의 속어(俗語)도 생겨나고 있는데, 얼마나 각성제 중독이 무서운 것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3) 흡입제(吸入劑)

흡입제(inhalant)는 가스 또는 휘발성이 높은 유기 화합물을 증발 시켜서 흡입하는 약물을 뜻한다. 이런 종류의 약물남용이 특히 청소년들에서 유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서운 일이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흡입제로는 접착제로 사용되는 「본드」류이다.

벤젠, 톨루엔, 키실렌, 4 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아세톤, 식초산아밀, 트리클로로에탄, 나프다, 이소프로필 알콜, 개솔린 등 각종 지방족 및 방향족 탄수화물 등이 약물중독을 일으키는 성분들이다. 그런 물질들이 접착제를 비롯하여 페인트, 락커신너, 드라이크리닝 액, 라이타 기름, 매니큐어 제거액 등 일상 가정용 약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위험인자로 되어 있다.

이런 물질들을 고농도로 흡입하면 중추신경이 억

제되어 마취되었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독성이 있다. 그러나 소량의 흡입이 술에 취한 것과 유사한 명정작용과 도취감이 생긴다고 하여 호기심으로 시작하다가 드디어는 만성중독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흡입제들이 간장, 신장에 중대한 독작용을 나타내고 골수(骨髓)기능을 억제 또는 파괴한다. 일시적으로는 윤패한 기분과 환각작용이 생긴다고 하나 점차 판단력과 현실인식력의 지장이 생기며, 장기간 흡입하는 습관이 생기면 운동실조, 언어장애, 복시(複視), 구토 등이 생긴다. 골수기능의 저하로 재생불능성(再生不能性) 빈혈증이 생겨서 생명을 잃게 된다.

“Sudden sniffing death”(突然吸入死)라는 현상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본드를 깊이 흡입하고 명정상태가 되어서 난폭한 행동 또는 단거리(短距離)의 질주 등의 충동이 생겨서 뛰다가 쓰러져서 죽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중독성 약물

바르비탈 화합물을 비롯한 수면제, 진정제, 항(抗)불안약, 항정신병약 등을 남용하면 역시 의존성이 생겨서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파멸하게 된다. 무슨 약이건 도매체가 약을 좋아하여서는 안된다.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할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약이며 약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잠을 쫓는다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졸음 쫓는 약」 또는 드링크제, 심지어는 커피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기호성이 생겨서 도리어 두뇌 기능을 저하 시킨다. 담배의 니코틴도 역시 신체적 의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면학도중의 청소년들은 흡연의 악습에 물들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근래 사회기강의 해이와 문란으로 청소년 흡연자가 늘어나고 심지어는 여학생들중에서도 흡연자가 생겨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하여튼 약물 중독은 본인의 패가 망신은 물론이고 결국은 가정, 사회, 국가마저 멸망하게 하는 세

기말(世紀末)적 망조라는 것을 국민전체가 깊이 인식하고 청신한 기풍과 건전한 오락 및 활동을 보급시켜서 그와 같은 퇴폐적인 악습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인용한바 있는 권 순경 교수의 논문에서 약물남용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제안되고 있는바, 그 중에서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을 해롭게 하는 각종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① 교과서 중심의 지식편중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 한다.
- ② 청소년의 과중한 입시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 ③ 주택가나 학교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흥업소, 숙박업소, 전자오락실, 불량도서 및 만화가게 등의 비교육적인 유해환경을 정비한다.
- ④ 청소년이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
- ⑤ 청소년에 대한 본드 판매의 효과적인 법적 규제책을 마련한다.
- ⑥ 청소년에 대한 항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제한한다.

결국 약이 없다면 입수할 수 없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의 공급원 차단은 매우 효과적인 마약확산 방지책이 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각종 매체를 동원하고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마약없는 사회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시켜야 한다.

또 교육자는 담당학생들 가운데서 결손 가정학생, 비행성향학생, 약물의존적 성향을 지닌 학생들을 분류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지도를 한다.

전국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에게 약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은 약물 오·남용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음으로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약물교육(drug education)을 실시한다.

약물남용은 “20세기의 재앙”(The 20th Century plague)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약

물남용의 뿌리를 뽑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비관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인용한 권순경 교수의 연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독자 여러분도 직접 논문을 활용하시기 바란다.

「중·고등학생의 약물남용 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덕성 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의약자원개발연구소 교수 권순경 박사)